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11월

내년 농업전망대회, 1월 23일 개최

“한국 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전망 2008 발표대회’를 2008년 1월 23일 9시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전일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농업전망대회는 ‘한국 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란 주제 하에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업,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어서

‘농업전망 2008 발표대회’는 1부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 하에,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이 ‘한국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또한 ‘2008년 농업·농가의 경제전망’을 박동규 농업관측정보센터장이 발표하고, ‘신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2부는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어서’란 주제 하에 3분과로 나뉘어 열린다. 1분과에서는 국제무역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주제는 ‘세계 곡물시장의 동향과 전망’, ‘FTA, DDA 추진 동향과 전망’, ‘남북농업협력 환경의 변화와 전망’, ‘한·칠레 FTA와 과수산업의 경쟁’이다. 2분과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생산, 유통에 대해 발표한다. 주요 주제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망’, ‘안전농산물의 소비자 신뢰구축’, ‘소비자 지향적 농산물 유통 사례’이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3분과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란 주제 하에 ‘경영지원체계 개선: 교육과 학습, 컨설팅 리더 육성’,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화’, ‘농식품 수출 사례분석’을 발표한다. 4분

과는 ‘함께 가는 복지 농촌’이란 주제로 열려 ‘농촌 정부수요 변화와 전망’, ‘향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의 노후대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3부는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이란 주제 하에 3분과로 나뉘어 열린다. 1분과에서는 쌀과 보리, 콩의 수급 전망과 과제, 쌀 유통계약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2분과에서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수급과 동향과 전망, 축산농가 소득변동 실태와 정책과제, 축산업 계열화 성공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3분과에서는 채소류와 과일류 수급 동향과 전망, 로열티 지불에 대응한 국산품 중 개발현황과 과제, 과일 브랜드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4분과에서는 채소와 임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중국채소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안전농산물의 소비자 신뢰구축, 임산물 상품 다각화 현황과 우수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12월 3일부터 사전등록접수 받아

‘농업전망 2008 발표대회’에 참가를 원하면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와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aglook.krei.re.kr)를 방문하여 등록방법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는 12월 3일부터 1월 1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사전 등록접수를 받고 있다. 사전 등록을 하면 현장등록의 혼잡을 피할 수 있고, 참가비 할인 혜택도 받는다. 농업전망대회 참가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별도로 ‘2008 농업전망’란을 개설했다.

동아시아 농업논단 내년 서울에서 개최

지난 11월 8일 일본국제협력기구 국제협력종합연구소 대강당에서 우리 연구원과 일본의 농림어업금융공고, 일·중산학교교류기구,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중국농업과학원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농업경영혁신’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최정섭 원장은 ‘한국의 시장개방 진전에 대응한 전업적 농업 경영체상’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중국경제위원회 두안 잉비 부주임은 ‘농업의 기본적 경영제도 견제와 경영체제 쇄신’이란 제목으로, 일본 동경대학 쇼겐지 신이치 농학부장은 ‘농정개혁과 새시대의 영농인상’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2008년에 열릴 동아시아농업논단은 우리 연구원 주최로 개최기로 결정하고 심포지엄을 마쳤다.

농정연구속보 2권 발간



연구원은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2권의 농정연구속보를 발간했다. 최근 배추와 무 가격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금년 김장철 채소 가격 및 김장수요 전망’ 연구결과를 농정속보로 발간했다.

국제 사료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돼지의 산지 가격 동향과 양돈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육 여건 변화와 양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농정연구속보를 발간했다.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성황리에 개최



행복마을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11월 26일 김대중 강당에서 개최했다.

연구원과 목포대학교가 주관하고 전라남도가 주최한 행복마을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11월 26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려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정섭 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농촌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실시될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전라남도가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마을 정비는 주민들의 이주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 치밀한 준비와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영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면소재지 개발형, 도농통합형, 중심마을 집중 육성형, 기존마을 정비보완형으로 구분하고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금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기뵈젤 파리10대학 교수는 ‘프랑스 농촌지역 정주공간 재정비 사례’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국의 농촌문제는 프랑스에서 근 100여 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가 압축적으로 일어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의 오가와 다케오 규슈대학 명예교수는 ‘일본의 집락 재편 사례’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도 농촌의 과소화로 집락재편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촌의 마을 정비는 노

인들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의 박시현 연구위원은 ‘행복마을 조성’과 정부사업의 연계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중요하므로 관련되는 중앙정부 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中, 농촌도시계획관리중심방문단 내원

중국 건설부 농촌도시계획관리중심방문단 10명이 11월 19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다.

방문단 대표인 류빈(劉斌) 단장은 최정섭 원장을 만나 관심사를 나눴다. 이어 소회의실에서 박시현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농촌도시계획과 건설 현황에 대해 설명한 뒤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단원들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경위와 주요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과 교훈을 중국의 신농촌 건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동호회 가을행사 가져

우리 연구원 배드민턴부와 산악회가 다양한 가을 행사를 가졌다. 배드민턴부는 11월 17일 창동배드민턴구장에서 추계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2그룹으로 나눠 열려 그동안 쌓은 실력을 견주며 친목을 다졌다. 산악회도 11월 2일과 3일 16명의 회원들이 간헐산, 신불산, 영축산을 등반하였다.

미국 옥수수과 에탄올 시장 전망, KREI 세미나



‘미국 옥수수과 에탄올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 수준에 이르렀으나 수입국의 경제성장 및 미국 달러의 약세로 말미암은 수출수요 증대와 원유가격 폭등에 따른 에탄올 수요 확대 등으로 옥수수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연구원은 10월 31일에 미국 텍사스 에이엔엠주립대학교의 존 펜슨(John B. Penson) 석좌 교수를 초청, ‘미국 옥수수와 에탄올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펜슨 교수는 발표에서 “10년 전에 옥수수 생산량의 6% 미만이던 연료용 수요가 2007년에는 27%로 확대되면서 시장에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기록적

바탕으로 펜슨 교수는 “옥수수 가격이 부셸당 3.19달러에서 최대 4.73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콩의 상대적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2008년에 옥수수 재배면적은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발표 내용 중 관심을 끈 것은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마스칸서스(Miscanthus)란 키 큰 대나무 모양의 영년생 장대 풀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업부문의 대응

김 병 루 연구위원

농업과 관련된 원자재인 석유, 곡물 가격이 급년 들어 급상승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에너지 원자재인 철광과 비철금속, 화학 원자재인 나프타와 에틸렌 등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 곡물 등 모든 원자재 가격 급등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를 중심으로 석유가격이 11월 26일 현재 배럴당 90불로 연초에 비해 약 40불이나 급등하였다. 곡물가격도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년 9월 옥수수 가격은 작년 9월에 비해 64% 상승한 132불이었으며, 대두와 밀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74%, 77% 상승했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국의 석유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제한적 증산, 달러화 약세, 미국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투기자금의 실물시장 유입, 구조련 등 비OPEC의 증산 여력 한계, 이란 등 산유국의 정세 불안 등이 그 요인이다. 이로 인해 배럴당 유가가 현재의 연평균 65불에서 2008년도에 최소한 75불, 심할 경우 100불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단적으로 1, 2차 오일쇼크처럼 산유국들의 석유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한다면 단기간에 최고 130불 수준까지 폭등할 수도 있다.

석유가격이 더 상승할 경우 거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미시적으로 휘발유 소비가 줄고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자동차, 광열비)이 늘어날 것이다. 농촌에서 석유류는 각종 농기계의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용 기름보일러 연료로도 많이 쓰인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온실 보일러와 축사 보일러용 연료로 많이 사용한다.

필자가 지난해 유가상승이 시설원예농

가의 경영비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설작물 10a당 경영비에서 영농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나타났다. 국제원유 가격이 80달러로 상승할 경우 경영비가 2004년에 비해 27% 증가하고 소득이 2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원유가 100불과 130불이라고 가정하면, 100불로 상승할 경우 경영비는 40% 오르고 소득은 31% 감소하였다. 130불까지 오를 경우 경영비는 58% 상승하고 소득은 45% 감소하였다.

유가급등이 결국 소비자 부담 초래

겨울철에 난방유 가격이 급등하면 많은 시설농가들은 난방유를 적게 사용하는 농사를 짓거나 아예 난방이 필요없는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이는 시설채소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은 특히 옥수수 등 곡물을 사료로 하는 양돈, 비육우, 양계 산업의 경영비 상승과 소득 하락을 초래한다.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곡물 소비 증가와 생산 불안정으로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곡물의 국제가격은 2006년 후반부터 급등하고 있다. 특히 곡물 재고율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유럽, 브라질 등에서 바이오연료용 곡물 사용이 확대되어 곡류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유가 상승에 따른 곡물 수입선박의 해상운임 상승과 복합 작용하여 사료곡물 수입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는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높이고 소득의 저하를 초래하여 국내 축산업 및 축산농가의 피해를 급격히 가중시킬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시설농사와 축산에서는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설

치하고 현재의 시설을 개조하여 유류 사용을 줄이는 시설 작형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 기회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시설을 도입하는 농림사업을 추진하길 제안한다.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의 안정적인 공급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외 안정공급시스템 구축 필요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사료업계와 축산업계,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의존적인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사료곡물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바이오 연료용 옥수수 가격, 사료곡물 가격, 축산물 가격, 국제유가 등이 상호 연동되어 동반상승하여 국제곡물 및 축산에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수년 동안 국제곡물가격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물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국,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입선도 다변화하여 국제가격 변동에 대응한 완충비축용 곡물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의 논과 유희지에 곡물 재배를 유도하여 자급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 휴폐경된 한계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일본에서 생산조정 대상 논에 사료용 곡물을 주로 심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본과 같이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 토지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곡물생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안정적인 곡물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R**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대응전략

김 용 택 선임연구위원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000년부터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국제곡물수급은 작년 10월부터 재고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제곡물가격이 본격 상승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곡물의 바이오 연료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 국가들이 바이오 연료 사용을 늘이면서 국제곡물가격이 급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단기 요인 외에도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국가들의 빠른 인구 증가와 높은 경제성장, 기상이변 등은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을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여기에 국제상품시장이 국제투자자본의 대상이 되면서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제곡물시장, 공급부족으로 전환

문제는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불안정성의 심화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국제곡물수급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나타난 현상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국제곡물수급이 6~7년마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때마다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다. 그 결과 국제곡물시장을 보다 낙관적으로 보게 되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기에는 비판적 입장에서 식량안보가 강조되었지만, 곡물가격이 안정을 되찾으면 곧바로 낙관적 입장으로 바뀌었다. 결국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력만 갖추고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식량안보는 개인 차원에서는 소득 문제이고, 국가차원에서는 경제력 문제라는 인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향후에도 이런 낙관적 시각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최근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증가는 식량문제가 에너지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또 다른 대체에너지가 마련될 때까지 곡물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 등 떠오르는 시장의 경제성장에 따른 곡물수요증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곡물수확감소 등은 이미 국제곡물수급이 공급부족 구조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국제곡물시장이 만성적 공급부족구조로 전환되었다면 전세계의 세 번째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국제곡물수급이 만성적인 공급부족 구조로 전환되었고, 에너지 문제가 식량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면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전략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8%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식량의 안정적 확보문제를 국가전략과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국내농업 측면만을 고려하여도 수출농업의 확대와 함께 국내농업의 해외시장개척 논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통일한국을 대비한다면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중요한 전략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

갈수록 낮아지는 국내식량자급률 하에서 어떻게 하면 식량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국내생산이 부족한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이다. 즉 국내생산을 늘이는 방법, 해외식량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방법, 비상을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하는 방법, 해외에 진출하여 식량을 개발하고 이의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등이다. 최근 해외농업개발수입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것도 급변하는 국제곡물시장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해외식량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곡물 수입

선을 보다 다변화하는 방안, 국제곡물거래에 있어 선물거래방식을 확대하는 방안, 비축 관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다. 이 중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선물거래의 확대방안이다.

일본이나 중국 등 대규모 곡물수입국은 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입물량의 30% 이내에서 선물시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일괄현물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괄현물거래가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같이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의 전략적 투자 필요

재개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투자 논의도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가 충분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자원 확보 차원이라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말은 즉 '남들이 하니 나도 진출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진출할 것인지', '어떤 작목을 중점 작목으로 채택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필요한 관련 지원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외농업개발투자의 면밀한 타당성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불안정성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국제곡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향후에는 보다 면밀하게 국제곡물수급구조와 가격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R]

한·EU FTA 협상 동향과 EU의 지속가능성 평가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연말까지 EU와의 FTA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난 5월 1차 협상 출범 당시 만해도 EU측은 우리나라의 취약부문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상 과정에서 까다로운 태도를 취했던 미국 대표단과 비교하면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상당히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했다.

실제로 EU측은 2차 협상에서 자국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예외없이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파격적인 양허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측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특별취급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EU, 한·미 FTA 수준의 양허 요구

협상이 거듭될수록 EU측은 '한·미 FTA 수준'을 요구하면서 '쌀 등 극소수'의 민감품목 이외에 모든 품목을 양허하라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협정 이행에 착수하던 의욕적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4차 협상까지 우리나라는 EU측에 관심품목에 집중하여 양허요청을 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EU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상 대상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EU 대표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5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양측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렴양허안을 중심으로 상품 양허 방안을 논의하였다.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와 함께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터(TRQ) 등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하였다. EU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와 낙농품, 포도주 등에 대한 우리측 양허안이 여전히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 다며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재차 요청하였다.

2차 협상 이후 불리해진 우리의 입장

이번 협상에서 위생 및 검역(SPS)과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농산물 양허안은 내년 1월로 예정된 6차 협상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6차 협상의 전망도 밝다고는 할 수 없다. 12월 대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 비준의 국회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돈협회 등 국내 생산자 단체의 입장도 단호하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미국에 돼지고기를 양허한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한·EU FTA 협상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 상태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EU는 예상과 달리 급진전하는 한·미 FTA 체결에 불안감을 느껴 사전 준비없이 협상을 제안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교두보 확보라는 명분도 있지만, 유효 구매력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우리나라 시장을 미국이 독식하는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U측은 종전의 FTA 체결 사례와 달리 공격적이면서도 최후안에 가까운 양허안을 2차 협상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불리한 구도의 협상을 일거에 반전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예상치 못한 높은 수준의 EU측 양허안이 공개된 2차 협상 이후 우리 측은 주도적 위치에서 순식간에 종속적 입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달라는 EU의 요구에 궁색한 논리로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안 작성이 난관에 봉착한 것보다 더 큰 관심을 끌 만한 사실이 전해졌다. 바로 EU가 IBM사에 의뢰한 한·EU FTA의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SIA)' 보고서가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SIA 보고서는 FTA 체결이 경제, 사회는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EU는 멕시코와 칠레 등 과거 FTA를 체결할 때 항상 사전에 SIA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협상에 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은 앞서 지적한대로 서둘러 착수하느라 보고서 발주가 늦어진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 도출할 수 있는 지혜 필요

문제는 SIA 보고서 내용에 따라 협상 기조가 바뀔 것인지 여부와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어 FTA 협정을 체결한다. 이와 달리 EU는 협상이 사회 전반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EU FTA 체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부정적 결과가 예상될 경우 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EU와의 FTA 협상에서 느긋한 입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란 항상 우호적인 상태에서 진행되지는 않는다. 때로는 큰소리도 내고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양쪽이 타협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EU처럼 지속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 농업의 장기적인 연착륙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농산물 수출국, 가격폭등에 대응 수출규제 확대

김태곤 연구위원

금년들어 세계 곡물가격 폭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한 품목만이 아니라 소맥을 비롯하여 옥수수, 대두, 쌀 등의 가격 폭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에탄올 수요로 그동안 옥수수가 곡물의 가격상승을 주도해 왔다. 이어서 지난 10월까지 소맥이 그 기록을 경신해 왔다. 11월부터는 대두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정세다. 대두는 11월 23일 시카고시장가격이 부셸당 11달러를 넘어서는 등 1973년 8월 이후 3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국·수입국 간 물량 쟁탈전 가열

가격상승만이 아니라 국내 소비량 확보도 심각한 문제다. 주요 수출국들은 국내 물가안정에 우선하여 수출수량 제한이나 수출세 인상을 통한 소비량 확보에 열심이다. 수입국은 수입관세 인하를 통하여 수입량 확보에 대응하는 현상이 세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물량 쟁탈전이 가열될수록 가격은 뛰어오르는 악순환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호주 상황이 심각하다. 호주는 최근 4년 연속 한발의 영향으로 곡물생산과 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쌀, 소맥, 사료곡물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호주는 한 때(2000년) 쌀 126만 톤 생산에 62만 톤 수출을 기록한 적이 있다. 12월에 파종하여 이듬해 5월에 수확한다. 금년도는 쌀에 대한 관개용수 할당을 완전 중단하여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만이 쌀 재배를 할 수 있다. 2008년산 쌀 생산은 재배농가 30호에 1만 5,000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농업신문, 2007. 11. 19>

인구대국 인도는 지난 10월 초 쌀과 소맥 수출을 금지하였다. 인도는 연간 400만 톤 정도를 수출하는 세계 3대 쌀 수출국이었으나 일부 고급 쌀을 제외하고는 배급량 확보와 재고관리를 위해 수출을 중단하였다.

베트남은 태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이다. 금년도 기상재해로 쌀 생산이 감소하자 국내 소비량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신규수출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소맥 수출국이자 세계 5위의 대맥 수출국이다. 러시아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소맥에 10%, 대맥에 30%의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12월 하원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정 물량을 확보하여 국내 식품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것이 국제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소맥, 대맥, 옥수수, 호밀 등 네 가지 품목에 대해 120만 3,000톤의 수출할당제를 실시하여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할당량은 수출가능량

401만 톤의 30%에 불과하다. 이유는 빵과 같은 국내 식품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브라질과 함께 2대 수출대국으로 꼽힌다.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11월 7일, 소맥, 옥수수, 대두 등에 부과하는 수출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옥수수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국 수입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는 수입선을 시카고시장으로 전환했고, 시카고시장에서 가격상승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EU는 소득보상직불제 수급요건으로 10%의 생산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생산조정은 당초 생산과잉 방지가 목적이었으나 최근 환경보전효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11월 20일 EU 집행위는 공동농업정책(CAP)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생산조정 폐지가 제안되었다. 세계 곡물수급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전환이다.

현재 EU의 생산조정면적은 380만ha에 달한다. 여기에 연료작물 재배는 허용되고 있다. 이를 제외한 160~290만ha의 농지가 생산에 복귀하면 1,000만 톤 내지 1,700만 톤의 곡물이 증산될 것으로 EU 당국자는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EU는 곡물수입을 늘리기 위해 2008년 6월까지 수입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WTO 농업협정에는 수입국에 대해서 수입수량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인하를 강요하고 있다. 반면에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대립을 상정하여 농산물 수출국이 수입국의 식량안보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정한 무역 규칙 확립과 국내 생산력 유지가 과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출국이 수출세 인상이나 수출수량 제한 등 수출규제를 실시할 때는 'WTO에 통보'하거나 '수입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 하는 정도의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출국은 자국의 소비자 입장을 중시할 때는 간단히 수출 제한이나 중단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수입국에 전가되는 것이 현행의 무역 규칙이다.

현재 지구촌에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석유위기와 식량위기 등 두 가지 지뢰가 언제 폭발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불평등한 무역 규칙과 악화되는 상황 아래서 수입국은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대외적으로는 DDA 농업협상에서 공정한 무역 규칙을 확립하여 국내 농업의 생산력을 유지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R**

11월 농정 주요 동향

국회, 새만금사업촉진 특별법 제정안 의결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새만금 지역 개발 방향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3월 대법원이 개발 승인 결정을 내린 후 관련 기관·단체들은 개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5월 30일 정부와 전라북도는 특별법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하였다. 이후 특별법은 농림해양수산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별법은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촌도시용지, 환경용지 및 에너지용지의 용도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자 지정 시 전라북도도지사나 미리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별 개발시설계획을 승인할 때 전라북도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농지 확보 목적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새만금 사업이 보다 다각화되어, 골프장이나 공단 건설 등을 위한 외국 자본과 외국기업 유치에 허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새만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 장관 산하에 '새만금사업관리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특별법은 환경질 관리(제3장 제23, 24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제4장 제27조),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제5장 제 29, 30조)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발표

농림부는 11월 6일 한·미 FTA 농업 부문 보완을 위해 2008~2017년까지 10년 동안 20조 4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 대책은 축산·원예 등 피해예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주업농을 대상으로 한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 장치 마련, 식품산업 육성 추진,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품목별 시설 현대화와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외에도 축산 부문은 이력추적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가축분뇨의 체계적 자원화, 과실류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확대, 채소류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주업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현행 7개 품목에서 30개까지 확대하는 등 농업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

될 예정이다. 식품산업 육성 강화 정책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 촉진 및 대단위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이와 관련한 22일 국회 본회의는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식품산업진흥법안」을 의결하였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여건 완화와 전문경영인 도입 촉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시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농가등록제를 2008년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보완 대책 추진을 위해서 집행되는 20조 4천억 원의 예산 외에 2004년 수립한 「19조 원 투융자 계획」 예산도 3조 9천억 원 증액하였다.

올해 쌀 공급 및 소비 감소 전망과 쌀 소비 촉진 노력

연구원은 올해 쌀 생산량이 당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예상치보다 1~3% 줄어 450만 톤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다. 11월 12일 발간한 '쌀 관측 가을호'에서 지난 9월 조사 이후 기상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치보다 1~3% 줄어든 436만 7,000~445만 7,000톤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2008양곡연도의 민간 부문 쌀 시장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20만 톤가량 줄어든 374만 6,000~383만 6,000톤에 그칠 전망이다. 수확기 가격은 지난해 14만 6,688원(80kg당)보다 0.9~3.8% 상승한 14만 8,057~15만 2,223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쌀 소비량 역시 줄어들고 있다. 11월 8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78.7kg으로 1980년 132.4kg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다. 연구원은 2007양곡년도 1인당 쌀 소비량이 77.0kg이라고 추정하였고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농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외 공원에서 '2007 라이스 투 미트 유(Rice to Meet You)' 행사를 열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행사와 함께 친환경 또는 유기 재배를 통한 쌀의 고급화와 신선한 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친환경 및 유기농 쌀의 매출이 2~3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정하지 얼마되지 않은 신선한 쌀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5~10kg 단위의 소포장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매장에서 쌀을 직접 도정해 주기도 한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2기 멘토링 종료, 3기 멘토링 결연식 가져



11월 5일 대회의실에서 제3기 멘토링 8쌍의 결연식이 있었다.

연구원은 11월 5일(월) 대회의실에서 최정섭 원장을 비롯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2기 멘토링 종료 간담회와 3기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하였다.

멘토링 1기 연장자 6명을 포함해 15명의 후임이 참석한 2기 멘토링 종료 간담회에서, 후임들은 각자의 멘토링 경험담을 소개했다. 멘토링이 이제 막 출발하는 연구자에게 매우 좋은 경험이 된다고 평가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기 멘토링 활동 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 처음 도입한 멘토링제도는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이 연장 신청을 하는 비율이 50%를 넘었다. 활동 방식도 다양화되는 등 선후임 연구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활동을 격려하는 원장서신 등 경영진의 깊은 관심 속에 빠르게 직장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3기 멘토링 결연식은 지난 9월 임용한 신입연구자 5명과 추가 신청자 3명 등 총 8쌍, 16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멘토링 참여자는 선임과 후임이 한조가 되어 앞으로 6개월간 정례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한다. 연구원은 멘토링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해 멘토링제도가 신입연구자 교육과 선후배 간 소통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다.

중국사무소 초대 소장 정정길 박사

우리 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중국사무소 설립을 추진하여 10월 10일 중국 농업부로부터 설립인가를 획득하고, 11월

1일자로 초대 소장에 정정길 박사를 임명했다.

□ 연구진 동정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10월 30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식문화 발전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주호 연구위원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에서 열린 OECD 시장작업반(APM) 회의에 참석했다.

△최경환 연구위원은 11월 20일 aT센터에서 열린 농림부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농촌복지사업의 개발 방향'이란 제

목으로 발표했다. 11월 21일은 영남대 자원문제연구소 학술심포지엄에서 '농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성명환 연구위원은 11월 8일 호남농업연구소에서 열린 국산 나물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향상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11월 20일은 충북대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국제 곡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영훈 연구위원은 11월 8일 작물과학원 강당에서 열린 국제농업개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북한농업 실태와 향후 남북협력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허덕 연구위원은 11월 15일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수의학회에서 'FTA 체결에 의한 수의·축산 경제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11월 8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OECD 환경전문가 워크숍에서 'OECD 2030 환경전망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대응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11월 29일은 경북 농업인회 관 강당에서 농업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체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핵심과제'란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11월 2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업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복숭아산업의 전망과 대책'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캄보디아 공무원 대상 농촌개발연수



캄보디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 동안 농촌개발연수를 갖고 있다.

연구원은 11월 26일부터 2주 일정으로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농촌개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개강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우리나라의 농

촌개발 경험을 캄보디아 농촌개발에 접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알찬 연수가 되길 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전략 및 정책 수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농촌변화와 인력, 농촌개발 경험에 대해 강의하고 토론했다. 강의를 마치고 농업 유관기관과 강원도 화천의 토

고미마을, 횡성 공근마을 등을 시찰하고, 12월 7일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사례를 발표한 후 연수과정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